

2023
고2 연매
지학사

고2 언어와 매체 지학사 | 4(1)(1) 고대 국어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다 빈출 유형 1

한자 차용 표기법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유 명사의 표기를 바탕으로 음독과 석독이 사용된 글자를 구별하는 유형이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한자 차용 표기법에 대한 지문을 제시하지 않거나, 개별 한자의 뜻과 음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는 해당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알타이 어족에 속하는 우리말이 다른 언어들과 분리된 이후부터 통일 신라 시대까지를 고대 국어 시기라고 한다. 이 시기는 신라가 삼국 통일을 통해 언어적 통일을 이룬 시기로, 신라의 수도가 지금의 경주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동남 방언을 기반으로 현대 우리말의 기초가 형성되었던 시기라 하겠다.

고대 국어 시기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음 체계에 예사소리와 거센소리의 대립만 있고 된소리 계열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한자음에 된소리 계열이 거의 없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한자음에 된소리가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한자음에 된소리가 드문 것으로 보아, 한자와 한자음을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였던 고대 국어 시기에는 우리말에 된소리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자의 유입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한자어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말 어휘 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졌다. ‘왕’이라는 한자어 명칭이 정식으로 사용되고, 순우리말로 되어 있던 지명이 한자어 지명으로 바뀌는 등 한자어 어휘가 일상으로 들어와서 쓰임이 확대되는 일이 통일 신라 시대에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고대 국어 시기에는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우리 글자가 없던 때여서 일부 전하는 자료도 우리말

의 모습을 온전하고 정확하게 보여 주지는 못한다. 그런데도 한자 차용 표기법을 사용한 자료들은 부분적으로나마 우리말의 옛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해 주는 귀중한 자료들이다.

한자 차용 표기법의 원리는 음독(音讀)과 석독(釋讀) 두 가지였다. 한자의 뜻을 버리고 소리만 이용하는 것이 음독이고, 반대로 한자의 소리를 버리고 뜻만 이용하는 것이 석독이다. 예를 들어, ‘古[옛 고]’자를 뜻과는 상관없이 단순히 ‘고’라는 소리를 표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음독이고, ‘水[물 수]’자를 써 놓고 ‘물’이라고 읽는다면 그것이 석독이다.

㉔한자 차용 표기법은 한자로 표기하기 어려운 우리말 고유 명사의 표기에서 시작되었다. 고유 명사 표기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기록에 우리말로 인명이나 지명, 관직명 등을 적기 위해 한자의 소리나 뜻을 빌려서 표기한 방식이다.

居染夫或云荒宗 (원문)

기록에서 ‘居染夫’와 ‘荒宗’은 동일 인명에 대한 두 가지 표기이기 때문에 표기가 달라도 똑같이 읽어야 한다.

한자 차용 표기법은 고유 명사 표기에서 시작되어 점차 ㉕구결(口訣), 이두(吏讀), 향찰(鄉札) 등으로 발달하였다. 구결은 한문 문장의 문맥을 파악하기 쉽도록 우리말 조사나 어미를 한자로 표기하는 방법이고, 이두는 단어를 우리말 어순에 맞게 바꾸고 조사나 어미도 한자로 표기하는 방법이다. 구결의 경우 한문에 조사나 어미와 같은 형식 형태소만 더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구결 글자를 빼면 그대로 한문이 되지만, 이두의 경우 어순까지 우리말에 맞도록 재배열하였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 표기를 빼도 온전한 한문이 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향찰은 신라의 향가를 표기하는 데 사용된 표기법으로, 어순을 우리말에 맞도록 배열하고 조사나 어미와 같은 형식 형태소를 한자로 표기할 뿐 아니라 명사나 동사 등의 실질 형태소와 단어들까지 한자로 표기하였기 때문에 가장 발달한 형태의 한자 차용

표기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 단어 등 여러 가지를 한자 차용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다 보니 읽고 쓰기의 방식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겼다. 이런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가장 발달한 한자 차용 표기법이었음에도 향가의 소멸과 함께 그 표기법인 향찰 역시 사라지게 된다. 향찰이 통일 신라 시대까지만 사용되고 사라졌다는 점에서 조선 시대에도 그 쓰임이 꾸준히 이어졌던 구결이나 이두와는 그 운명이 사뭇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나)

居柒夫或云㉠荒宗 (원문)
거칠부 혹은 황종이라 한다. (현대어 역)

(다)

壬申年六月十六日 二人并誓記 天前誓 ㉡今自三年
以後 忠道執持 過失无 誓 若此事失 天㉢大罪得誓

(현대어 역)

임신년 6월 16일에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하여 기록한다. 하늘 앞에 맹세한다. 지금으로부터 3년 이후에 충도를 지켜 지니고 과실이 없기를 맹세한다. 만일 이 일을 어기면 하늘에 큰 죄를 얻을 것이라고 맹세한다.

(라)

今日此矣散花唱良 (원문)
오늘 이에 散花 불러 (해독)
- 월명사, 「도솔가」에서

1. (다)의 한자 원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 ㄱ. ㉡에서 ‘自’는 조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 ㄴ. 윗글을 썼을 당시 중국인들이 이 글을 보았다면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 ㄷ. ㉢의 경우, 우리말의 어순에 맞게 배열된 것으로 보아 구결보다 더 발달된 한자 차용 표기법이 사용된 글임을 알 수 있다.
- ㄹ. 한자 차용 표기법 중 그 사용 기간이 가장

짧은 표기법이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 (가)를 바탕으로 (라)의 글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원문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원문의 글자 수와 우리말로 해독한 글자 수가 정확히 일치한다.
- ③ 원문은 한자를 우리나라 말에 맞도록 배열한 문장이다.
- ④ 해독한 문장에서 의존 형태소는 모두 세 개로 전부 음독한 것이다.
- ⑤ ‘今日’은 실질 형태소이므로 훈으로 읽어야 한다.

3. 고유 명사 표기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ㄱ.
居柒夫或云荒宗 (원문)
거칠부 혹은 황종이라 한다. (현대어 역)
- ㄴ.
永同郡本吉同郡 (원문)
영동군은 본래 길동군이다. (현대어 역)

居: 살 거	柒: 옷 칠, 일곱 칠
夫: 사내 부	荒: 거칠 황
宗: 마루 종	
永: 길 영	同: 같을 동
吉: 길할 길	

- ㄱ의 '居柒夫'와 '荒宗'은 동일 인명에 대한 두 가지 표기이다.
- ㄱ의 '荒'을 '거칠'이라고 읽을 경우, '荒'은 석독을, '居柒'은 음독한 것이다.
- ㄴ의 지명은 '永同'이라고 쓰고 '길동'이라고 읽었을 것이다.
- ㄴ의 '永同'을 '길동'이라고 읽을 경우 '永'은 음독을, '同'은 석독한 것이다.
- ㄱ의 '居柒'와 (나)의 '吉同'은 현대어 역으로 볼 때 같은 방식으로 읽었을 것이다.

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한자 차용 표기법은 고유 명사의 표기에서 시작되었다.
- 구결은 한문에 조사나 어미와 같은 형식 형태소만 더 표기한 것이다.
- 향찰은 가장 발달한 형태의 한자 차용 표기법이라 할 수 있다.
- (나)는 고유 명사 표기법으로 ㉠은 '거칠'이라고 석독을 한다.
- (다)는 이두 표기법으로 ㉡과 ㉢은 한문의 어순대로 쓰여 있다.

5. 고유 명사 표기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永同郡本吉同郡 (원문) 영동군은 본래 길동군이다. (현대어 역)

ㄴ. 居柒夫或云荒宗 (원문) 거칠부 혹은 황종이라 한다. (현대어 역)
永: 길 영 同: 같을 동 吉: 길할 길 荒: 거칠 황

- ㄱ의 지명은 '永同'이라고 쓰고 '길동'이라고 읽었을 것이다.
- ㄱ의 '永同'을 '길동'이라고 읽을 경우 '永'은 석독을 한 것이다.
- ㄴ의 '荒'을 '거칠-'로 읽을 경우 '居柒夫'의 '居柒'과 동일하게 읽게 된다.
- ㄴ의 '荒宗'을 '거칠부'라고 읽을 경우, '荒'은 음독을 한 것이다.
- ㄱ과 ㄴ은 지명이나 관직명 등을 적기 위해 차자 표기를 한 것이다.

6. (나)는 ㉡의 예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이러한 표기를 통해 중국 한문의 뜻을 더욱 쉽게 이해하였다.
- 우리의 고유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한자의 음과 뜻으로 표기하였다.
- '荒宗'의 '荒'을 석독하여 읽은 것과 '居柒夫'의 '居柒'을 음독하여 읽은 것의 발음은 같다.
- '荒宗'의 '荒'을 음독이 아니라 석독하면 '황'이라는 한자음이 아니라 '거칠'이라는 뜻으로 읽는다.
- 기록에서 '居柒夫'와 '荒宗'은 동일 인명에 대한 두 가지 표기이기 때문에 표기가 달라도 똑같이 읽어야 한다.

7. <보기>는 ㉔의 모습을 알려 주는 문헌의 원문과 그에 대한 풀이이다. <보기>의 ㉓~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㉓
永同郡本吉同郡 (원문)
영동군은 본래 길동군이다. (현대어 역)
- 『삼국사기』, 권 34

㉔
天地之間萬物之中厓唯人伊最貴爲尼所貴乎人子隱以其有五倫也羅 (구결문)
천지시간만물지중애 유인이 최귀하니 소귀호 인자논 이기유오륜야라. (독법)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것 중에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니, 사람이 귀한 것은 오륜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어 역)
- 「동몽선습」

㉕
壬申年六月十六日 二人并誓記 天前誓 今自三年以後 忠道執持 過失无 誓 若此事失 天大罪得誓 (원문)
임신년 6월 16일에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하여 기록한다. 하늘 앞에 맹세한다. 지금으로부터 3년 이후에 충도를 지켜 지니고 과실이 없기를 맹세한다. 만일 이 일을 어기면 하늘에 큰 죄를 얻을 것이라고 맹세한다. (현대어 역)
- 「임신서기석」

㉖
今日此矣散花唱良 (원문)
오늘 이에 散花 불러 (해독)
- 월명사, 「도솔가」에서

- ① ㉓에서 지명 '永同'의 '永'을 당시 사람들이 뜻을 이용하여 읽었다면 [길]이라고 읽었을 것이다.
- ② ㉓에서 '永同郡'과 '吉同郡'이 하나의 지명을 두 개의 이름으로 불렀을 가능성이 없다면 당시 사람들이 하나의 지명을 다르게 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③ ㉔는 한문의 어순은 그대로 두고 우리말에서 문

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조사와 어미가 구결 문자로 표기되어 있다.

- ④ ㉓에서 '今自'와 '大罪得'은 '지금으로부터'와 '큰 죄를 얻을'이라는 뜻으로 한문의 어순에 맞게 표현한 것이다.
- ⑤ ㉕에서 '今日'은 '오늘'이라는 뜻을 한자의 뜻을 빌어 표기한 것이고, '此矣'는 '이에'라는 뜻을 한자의 음과 뜻을 빌어 표기하였다.

【8~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㉑永同郡本吉同郡 (원문)
영동군은 본래 길동군이다. (현대어 역)
- 『삼국사기』, 권 34

(나)
㉒居㉓柒夫或云㉔荒宗 (원문)
거칠부 혹은 황종이라 한다. (현대어 역)

(다)
壬申年六月十六日 二人并誓記 天前誓 今自三年以後 忠道執持 過失无 誓 若此事失 天大罪得誓
(현대어 역)
임신년 6월 16일에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하여 기록한다. 하늘 앞에 맹세한다. 지금으로부터 3년 이후에 충도를 지켜 지니고 과실이 없기를 맹세한다. 만일 이 일을 어기면 하늘에 큰 죄를 얻을 것이라고 맹세한다.

(라)
今日㉕此矣散花㉖唱㉗良 (원문)
오늘 이에 散花 불러 (해독)
- 월명사, 「도솔가」에서

(마)
天地之間萬物之衆厓唯人伊最貴爲尼所貴乎人子隱以其有五倫也羅(한문)

天地之間萬物之中厓 唯人伊 最貴爲尼 所貴乎人子
 隱 以其有五倫也羅 (구결문)

천지지간만물지중애 유인이 최귀하니 소귀호인자
 는 이기유오륜야라. (독법)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것 중에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니, 사람이 귀한 것은 오륜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어 역)

- 「동몽선습」

8.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보기>

예전에 ‘한밭’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지금의
 ‘대전(大田)’은 ‘넓고 큰 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 ① ‘吉’은 음독, ‘永’은 석독 표기를 했을 것이다.
- ② <보기>의 ‘한밭’은 우리 고유의 지명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길동군’과 ‘대전’은 한자의 뜻을 빌린 지명이라 볼 수 있다.
- ④ 순 우리말 지명이 한자어 지명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 ⑤ 한자 문화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고유어 지명이 널리 사용되었을 것이다.

9.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우리글이 없었기 때문에 한문(중국의 어순)으로 표기했다.
- ②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까지 완벽하게 기록할 수 있는 표기 체계이다.
- ③ ‘今自’는 우리말 어순으로 한문은 ‘自今’으로 표기해야 한다.
- ④ ‘大罪得’는 한문의 어순과 정확히 일치하는 표기이다.
- ⑤ 구결 표기로, 한문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조사나 어미를 한자로 표기하는 방법이다.

10. (가), (나), (라)의 ㉠~㉣ 중 쓰인 방식이 같은 것
 끼리 묶인 것은?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11. (라)의 표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자 차용 표기의 일종이다.
- ② 향가의 소멸과 함께 사라졌다.
- ③ 한문 문장의 문맥을 쉽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 ④ 형식 형태소의 표기에는 주로 음독자를 사용했다.
- ⑤ 실질 형태소와 단어들까지 한자로 표기했기 때문에 가장 발달한 형태의 표기법이라 할 수 있다.

12. (다)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은?

- ① 한자를 활용하여 우리말 어순에 따라 표기하였다.
- ② 단어를 우리말 어순에 맞도록 배열하고 어미를 한자로 표기하였다.
- ③ 한문 문장을 바탕으로 하면서 조사나 어미를 한자로 표기하였다.
- ④ 단어를 우리말 어순에 맞도록 배열하고 형식 형태소만 한자로 표기하였다.
- ⑤ 형식 형태소에 해당하는 글자를 제외하면 완전한 한문 문장이 되도록 표기하였다.

13. <보기>를 바탕으로 (가)~(마)를 이해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

한자 차용 표기법의 원리는 음독(音讀)과 석독(釋讀) 두 가지였다. 한자의 뜻을 버리고 소리만 이용하는 것이 음독이고, 반대로 한자의 소리를 버리고 뜻만 이용하는 것이 석독이다. 예를 들어, ‘古[옛 고]’ 자를 뜻과는 상관없이 단순히 ‘고’라는 소리를 표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음독이고, ‘水[물 수]’ 자를 써 놓고 ‘물’이라고 읽는다면 그것이 석독이다.

- ① (가)에서 ‘永’을 뜻으로 읽으면 ‘永同郡’과 ‘吉同郡’은 같은 지명을 나타낸 말이겠군.
- ② (나)에서 ‘荒’을 뜻으로 읽으면 ‘居柒’과 같은 방식으로 읽게 되는 것이겠군.
- ③ (다)에서 ‘此矣’는 석독과 음독이 모두 사용된 표현이겠군.
- ④ (라)에서 ‘大罪得’은 이 글의 표기 방식을 알려 주는 표현에 해당하겠군.
- ⑤ (마)에서 구결 글자를 빼면 그대로 우리말 어순과 일치하겠군.

14. <보기>의 「동몽선습」은 한문을 처음 배우는 어린이들의 교재로 지은 책이다. 구결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

(구결문) 天地之間萬物之中厓 唯人伊 最貴爲尼 所貴乎人子隱 以其有五倫也羅

(독법) 천지之間만물지중애 유인이 최귀하니 소귀호인자는 이기유오륜야라.

(현대어 역)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것 중에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니, 사람이 귀한 것은 오륜이 있기 때문이다.

- ① 厓 ② 伊 ③ 爲尼
- ④ 也 ⑤ 羅

15.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1> —

한자 차용 표기법의 원리는 음독(音讀)과 석독(釋讀) 두 가지였다. 한자의 뜻을 버리고 소리만 이용하는 것이 음독이고, 반대로 한자의 소리를 버리고 뜻만 이용하는 것이 석독이다.

— <보기 2> —

ㄱ.
居柒夫或云荒宗 (원문)
거칠부 혹은 황종이라 한다. (현대어 역)

ㄴ.
永同郡本吉同郡 (원문)
영동군은 본래 길동군이다. (현대어 역)

居: 있을 거	柒: 옷 칠
夫: 지아비 부	或: 혹은
云: 이를 운	荒: 거칠 황
宗: 우두머리 종	永: 길 영
同: 같을 동	郡: 고을 군
本: 근본 본	吉: 길할 길

- ① ‘永’은 ‘길다’의 뜻으로 읽혔을 것이다.
- ② ‘居柒’은 한자의 소리를 빌려 표기한 것이다.
- ③ ‘荒’과 ‘吉’은 모두 석독하여 읽었을 것이다.
- ④ 우리말을 표기할 수 없어서 한자를 차용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 ⑤ 제시된 인명, 지명은 동일한 대상에 대한 두 가지 표기로, 표기는 달라도 똑같이 읽어야 한다.

16. (가)~(다)를 통해 고대 국어의 한자 차용 표기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가)
[원문1] 天地之間萬物之衆厓唯人伊 最貴爲尼 所貴乎人子隱 以其有五倫也羅

[원문 2] 天地之間萬物之中厓 唯人伊 最貴爲
 尼 所貴乎人子隱 以其有五倫也羅

[독법] 천지시간만물지중애 유인이 최귀하니
 소귀호인자느 이기유오륜야라.

[현대어 역]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것 중에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니, 사람이 귀한 것은 오
 륜이 있기 때문이다.

- 「동몽선습」

(나)

[원문] 壬申年六月十六日 二人并誓記 天前誓
 今自三年以後 忠道執持 過失无 誓 若此事失 天
 大罪得誓

[현대어 역] 임신년 6월 16일에 두 사람이 함
 께 맹세하여 기록한다. 하늘 앞에 맹세한다. 지
 금으로부터 3년 이후에 충도를 지켜 지니고 과
 실이 없기를 맹세한다. 만일 이 일을 어기면 하
 늘에 큰 죄를 얻을 것이라고 맹세한다. (현대어
 역)

- 「임신서기석」

(다)

[원문] 今日此矣散花唱良

[해독] 오늘 이에 散花 불러

- 월명사, 「도솔가」에서

- ① (가)의 '원문 1'과 '원문 2'를 비교해보면 '원문 2'에는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와 같은 형식 형태소가 한자로 표기되어 있어.
- ② (가)의 '원문 2'에서 문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형식 형태소를 제외하면 그대로 한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
- ③ (나)의 밑줄 친 부분에서, 일반적인 한문 문장의 어순과 달리 우리말의 어순에 가깝게 표기하려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 ④ (다)의 밑줄 친 한자가 '이 차'와 '어조사 의'이므로 우리말 '이에'를 표현하기 위해 한자의 뜻만 빌려왔음을 알 수 있어.
- ⑤ (다)는 (가), (나)에서 더 나아가 실질 형태소도 한자를 차용하여 표기한 가장 발달된 형태의 차자 표기법이라 할 수 있어.

17.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고대 국어의 모습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ㄱ.

永同郡本吉同郡 (원문)

영동군은 본래 길동군이다. (현대어 역)

- 『삼국사기』, 권 34

ㄴ.

居柒夫或云荒宗 (원문)

거칠부 혹은 황종이라 한다. (현대어 역)

- 『삼국사기』, 권 44

한자	뜻	소리	한자	뜻	소리
永	길다	영	荒	거칠 다	황

- ①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우리 글자가 존재했다.
- ② 우리말의 어휘 체계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 ③ 지명이나 인명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 없어 혼란스러웠다.
- ④ 중국의 한자음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한자음에는 된소리가 드물다.
- ⑤ 한자의 뜻과 소리를 활용하여 우리말의 고유 명사를 표기하였다.

2023
고2 연매
지학사

고2 언어와 매체 지학사 | 4(1)(1) 고대 국어 서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필수 유형

한자 차용 표기법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료를 제시하고 석독과 음독을 구별하거나 두 방식을 활용하여 예문을 읽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므로, 석독과 음독의 방식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두 표기의 특징에 대해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한자 차용 표기법에 해당하는 구결, 이두, 향찰의 특징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자 차용 표기법은 한자로 표기하기 어려운 우리 말 고유 명사의 표기에서 시작되었다. 고유 명사 표기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기록에 우리 말로 인명이나 지명, 관직명 등을 적기 위해 한자의 소리나 뜻을 빌려서 표기한 방식이다.

居柒夫或云荒宗 (원문)

기록에서 '居柒夫'와 '荒宗'은 동일 인명에 대한 두 가지 표기이기 때문에 ㉠표기가 달라도 똑같이 읽어야 한다.

1. ㉠와 같이 읽기 위해서 <보기>에서 석독해야 하는 한자를 찾아 쓰시오.

<보 기>

永同郡本吉同郡 (원문)

2. <보기>의 [학습 내용]을 참고하여 [학습 활동]을 수행하십시오. (해독한 암호 6글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보 기>

[학습 내용]

한자 차용 표기법의 원리는 음독(音讀)과 석독(釋讀) 두 가지였다. 한자의 뜻을 버리고 소리만 이용하는 것이 음독이고, 반대로 한자의 소리를 버리고 뜻만 이용하는 것이 석독이다. 예를 들어, '古[옛 고]' 자를 뜻과는 상관없이 단순히 '고'라는 소리를 표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음독이고, '水[물 수]' 자를 써 놓고 '물'이라고 읽는다면 그것이 석독이다.

[학습 활동] 아래 표를 활용하여 암호를 해독하세요.

암호: 第足二二加尺

한자	방법
第: 차례 제	음독
足: 발 족	석독
二: 둘 이	석독
二: 둘 이	음독
加: 다할 가	음독
尺: 자 척	석독

정답 및 해설

내신형 기출 문제

1. [정답] ②

ㄱ. ㉠에서 ‘自’는 ‘로부터’라는 뜻을 나타내는 어조사이다.

ㄴ. (다)는 한자를 빌려 쓰되, 우리말의 어순에 맞게 배열하였다. 따라서 그 당시 중국인들이 이 글을 보았다면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ㄷ. ㉡의 경우, 한문 어순인 ‘得大罪’와 같이 배열되지 않고 우리말의 어순에 맞게 배열되었다. 이는 한문의 어순을 따르는 구결보다 더 발달된 한자 차용 표기법인 이두가 사용된 글임을 보여 준다.

ㄹ. (다)는 초기 이두 표기법에 해당하며, 한자 차용 표기법 중 그 사용 기간이 가장 짧은 표기법은 향찰이다.

2. [정답] ④

해독한 문장에서 의존 형태소는 ‘矣, 良’의 두 개로 모두 음독한 것이다.

① 원문은 문장의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구별하여 석독과 음독을 통해 표기한 것이다.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형태소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원문을 해석할 수 있다.

② 원문의 글자 수는 8자, 우리말로 해독한 글자 수도 8자이다.

③ 원문은 한자의 뜻과 음을 빌려 우리말을 옮겨 적은 문장이다.

⑤ ‘今日’은 ‘오늘’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한자의 음을 버리고 훈으로 읽어야 한다.

3. [정답] ④

ㄴ의 ‘永同’을 ‘길동’이라고 읽을 경우 ‘永’은 석독을, ‘同’은 음독한 것이다.

① ㄱ의 ‘居柒夫’와 ‘荒宗’은 ‘거칠부’라는 동일 인명을 음독과 석독을 활용하여 두 가지로 표기한 것이다.

② ㄱ의 ‘荒’을 ‘거칠’이라고 읽을 경우, 음을 버리고 뜻을 취한 것이므로 ‘荒’은 석독을 한 것이다. 이때

‘居柒’은 동일한 인명이므로 음독하여 ‘거칠’과 같이 읽어야 한다.

③ ㄴ의 지명은 ‘吉同’ 또는 ‘永同’이라고 썼다는 점을 고려할 때, ‘永同’은 ‘永’을 석독하여 ‘길동’이라고 읽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ㄱ의 ‘居柒’와 (나)의 ‘吉同’은 현대어 역으로 볼 때 모두 음을 취하는 음독으로 읽었음을 알 수 있다.

4. [정답] ⑤

(다)는 이두 표기법이 사용된 자료로, ㉠과 ㉡은 우리말의 어순대로 쓰여 있다.

① (가)의 ‘한자 차용 표기법은 한자로 표기하기 어려운 우리말 고유 명사의 표기에서 시작되었다.’를 고려할 때 적절하다.

② ‘구결은 한문 문장의 문맥을 파악하기 쉽도록 우리말 조사나 어미를 한자로 표기하는 방법이고’를 고려할 때 적절하다.

③ ‘향찰은 신라의 향가를 표기하는 데 사용된 표기법으로, 어순을 우리말에 맞도록 배열하고 조사나 어미와 같은 형식 형태소를 한자로 표기할 뿐 아니라 명사나 동사 등의 실질 형태소와 단어들까지 한자로 표기하였기 때문에 가장 발달한 형태의 한자 차용 표기법이라 할 수 있다.’를 고려할 때 적절하다.

④ (나)는 고유 명사를 표기한 자료로 ㉠은 한자의 뜻을 빌려 ‘거칠’이라고 석독을 한다.

5. [정답] ④

ㄴ의 ‘荒宗’을 ‘거칠부’라고 읽을 경우, ‘荒’은 석독을 한 것이며 음독할 경우 ‘황’이 된다.

①, ② ㄱ의 지명은 ‘吉同’ 또는 ‘永同’이라고 썼다는 점을 고려할 때, ‘永同’은 ‘永’을 석독하여 ‘길동’이라고 읽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ㄴ의 ‘荒’을 석독하여 ‘거칠-’로 읽을 경우 ‘居柒夫’의 ‘居柒’을 음독한 ‘거칠’과 동일하게 읽게 된다.

⑤ ㄱ과 ㄴ은 지명이나 관직명 등을 적기 위해 한자의 뜻과 음을 빌려온 것으로, 차차 표기에 해당한다.

6. [정답] ①

중국 한문의 뜻을 더욱 쉽게 이해하기 위한 표기법

은 구결로, (나)와는 관련이 없다.

② (나)는 우리의 고유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로 된 고유 명사를 표기한 것이다.

③, ④ ‘荒宗’의 ‘荒’을 음독이 아니라 석독하면 ‘황’이라는 한자음이 아니라 ‘거칠’이라는 뜻으로 읽으며, 이는 ‘居柒夫’의 ‘居柒’을 음독하여 읽은 ‘거칠’과 같다.

⑤ ‘居柒夫’와 ‘荒宗’은 동일 인명을 음독과 석독의 방법을 활용하여 두 가지로 표기한 것이다. 따라서 표기가 달라도 똑같이 읽어야 한다.

7. [정답] ④

㉠에서 ‘今自’와 ‘大罪得’은 ‘지금으로부터’와 ‘큰 죄를 얻을’이라는 뜻으로 우리말의 어순에 맞게 표현하는 이두의 방식이 드러난다.

① ㉠에서 지명 ‘永同’의 ‘永’을 뜻을 이용하여 석독하면 [길]이므로 적절하다.

② ㉠에서 ‘永同郡’과 ‘吉同郡’이 하나의 지명을 두 개의 이름으로 불렀을 가능성이 없다면, 이는 당시 사람들이 하나의 지명을 다르게 표기한 것이라고 추론해야 한다.

③ ㉠은 한문의 어순은 그대로 두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말에서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조사와 어미를 구결 문자로 표기하였다.

⑤ ㉠에서 ‘今自’는 ‘오늘’이라는 뜻을 한자의 뜻을 빌려 표기한 석독에 해당한다. 반면 ‘此矣’는 ‘이에’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각각 석독과 음독한 것이다.

8. [정답] ③

‘대전’은 한자의 뜻을 빌린 지명이지만, ‘길동군’은 우리 고유의 지명이다. (가)에서 한자의 뜻을 빌린 지명은 ‘永同郡’이다.

① ‘吉’을 음독하고 ‘永’을 석독하면 [길]과 같이 동일하게 읽을 수 있다.

② <보기>의 ‘한밭’은 ‘대전’이라는 한자 지명이 등장하기 전 사용한 우리 고유의 지명이다.

④ (가)와 <보기>를 통해 한자가 유입된 후, 순 우리말 지명이 한자어 지명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⑤ (가)와 <보기>를 통해 한자 문화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고유어 지명이 널리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9. [정답] ③

(다)의 ‘今自’는 우리말 어순으로, 한문으로는 ‘自今’으로 표기한다는 점에서 이두의 특징이 드러난다.

①, ⑤ (다)는 이두 표기로, 우리글이 없었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를 한문을 빌어 표기하며, 한문을 우리말의 어순에 맞게 배치했던 방법이다.

② (다)는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를 완벽하게 기록하기는 어렵다.

④ ‘大罪得’는 한문의 어순과는 다른, 우리말의 어순을 따른 배치이다.

10. [정답] ②

㉡, ㉢, ㉣, ㉤ 한자의 음을 버리고 뜻을 빌려 표기한 석독에 해당한다.

㉠, ㉡, ㉢ 한자의 뜻을 버리고 음을 빌려 표기한 음독에 해당한다.

11. [정답] ③

한문 문장의 문맥을 쉽게 파악하기 위한 것은 구결이다.

① (라)는 향찰로, 한자 차용 표기의 일종이다.

② 향찰은 그 방법이 복잡하여 향가가 소멸하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사라졌다.

④ (라)는 주로 음독자를 통해 조사와 어미 같은 형식 형태소를 표기했다.

⑤ (라)는 구결, 이두에 비해 한자 차용 표기법 중 가장 발달한 형태의 표기법이라고 평가된다.

12. [정답] ①

(다)는 이두가 사용된 자료로, 밑줄 친 부분은 한자를 활용하면서도 한문 어순이 아니라 우리말 어순에 따라 표기하였다.

② (다)의 밑줄 친 부분이 단어를 우리말 어순에 맞도록 배열한 것은 맞으나, 어미를 한자로 표기한 것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한문 문장을 바탕으로 하면서 조사나 어미를 한자로 표기한 것은 구결이다.

④ (다)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모두 한자로 표기되어 있다.

⑤ (다)는 형식 형태소에 해당하는 글자를 제외해도 완전한 한문 문장이 되지 않는다.

13. 정답 ⑤

(마)는 한문의 뜻을 파악하기 쉽게 구결자를 추가한 것으로, 구결 글자를 빼면 그대로 한문의 어순이 된다.

① (가)에서 '永'을 뜻으로 읽으면 [길]이 되므로, '永同郡'과 '吉同郡' 모두 '길동군'을 나타낸 말임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荒'을 뜻으로 읽으면 [거칠]로, '居柒'을 음독하였을 때와 같다.

③ (다)의 '此矣'는 각각 석독과 음독할 때 '이에'와 같이 해독할 수 있다.

④ (라)의 '大罪得'은 한자를 우리말의 어순에 맞게 배치한 것으로, 해당 글이 이두를 활용한 것임을 알려 준다.

14. 정답 ④

<보기>에서 한문의 뜻을 파악하기 쉽게 추가한 구결자는 厓(에), 伊(이), 爲尼(하니), 隱(은), 羅(다)이다.

15. 정답 ③

'荒'은 석독, '吉'은 음독하여 읽은 글자이다.

① 같은 지명을 '吉同' 또는 '永同'이라고 썼다는 점을 고려할 때, '永同'은 '永'을 석독하여 '길동'이라고 읽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같은 인명을 '居柒夫' 또는 '荒宗'이라고 썼다는 점을 고려할 때, '居柒'은 한자의 소리를 빌려 '거칠'을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보기>의 자료는 우리글이 없어 우리말을 표기할 수 없었던 당시, 한자를 차용하여 고유 명사를 표기한 것이다.

⑤ 제시된 인명, 지명은 동일한 대상을 음독과 석독하여 표기한 것이다. 따라서 표기는 달라도 똑같이 읽어야 한다.

16. 정답 ④

(다)의 밑줄 친 한자는 '이 차'와 '어조사 의'이다. 따라서 우리말 '이에'를 표현하기 위해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온 예시이다.

① (가)의 '원문 1'과 달리 '원문 2'에는 '厓', '伊' 등의 구결자를 활용하여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와 같은 형식 형태소를 한자로 표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의 '원문 2'는 한문 문장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한자를 빌려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를 표기했다. 따라서 이러한 구결자를 제외하면 그대로 한문이 된다.

③ (나)의 밑줄 친 부분은 우리말의 어순에 맞게 한자를 재배치한 것으로, 한문 어순으로 한다면 각각 '自今'과 '得大罪'이 된다.

⑤ (다)는 향찰로, 한자를 빌려 형식 형태소를 표기하던 (가)의 구결, (나)의 이두에서 더 나아가 실질 형태소도 한자를 차용하여 표기했다는 점에서 가장 발달된 형태의 차자 표기법으로 평가받는다.

17. 정답 ⑤

<보기>는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우리 글자가 없어 한자의 뜻과 소리를 활용하여 우리말의 고유 명사를 표기한 사례이다.

① <보기>는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우리 글자가 없어 한자를 대신 빌려 표기한 것이다.

② <보기>는 우리말로 된 고유 명사와 이에 해당하는 한자어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우리말의 어휘 체계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음을 직접 비교할 수 없다.

③ <보기>는 지명이나 인명을 두 가지 방식으로 표기한 것으로, 그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④ <보기>를 통해 중국의 한자음과 우리나라의 한자음을 직접 비교할 수 없다.

18. 정답 ③

윗글에서 고대 국어에 된소리가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확인할 수 없다.

① 고대 국어의 자음 체계에 예사소리와 거센소리의 대립만 있고 된소리 계열이 없다는 내용을 통해 한자음을 수용하던 시기에는 우리말에 된소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고대 국어 시기에는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우리 글자가 없던 때여서 일부 전하는 자료도 우리말의 모습을 온전하고 정확하게 보여 주지는 못한다.'

고 있으며, 이 중 한자의 뜻을 빌려 이름을 표기한 것은 ‘金川’이다.

② (나)의 ㉠은 이두를 통해 한자를 우리말의 어순에 맞게 표기한 것이나, 조사나 어미를 표시할 수 없어 완전한 우리말 표기가 어려움을 알 수 있다.

③ (다)의 ㉡은 ‘공주’의 ‘주’를 나타내는 것으로 음차이다.

⑤ (다)의 ㉢은 ‘가다’라는 뜻을 나타내므로 훈차이다.

28. **정답** ③

‘嫁良’에서 ‘嫁’은 용언의 어간이므로 실질 형태소, ‘良’은 어미이므로 형식 형태소이다.

① ‘他’는 ‘남’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한자의 뜻을 빌려서 표기한 것이다.

② ‘密只’에서 ‘只’는 어미 ‘-지’를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이고, 한자의 음을 빌려 표기한 것이다.

④ ‘置古’에서 ‘置’는 용언의 어간 ‘두-’를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이고, 한자의 뜻을 빌려 표기한 것이다.

⑤ ‘置古’에서 ‘古’는 어미 ‘-고’를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이며, 한자의 음을 빌려 표기한 것이다.

서술형 기출 문제

1. **정답** 永

2. **정답** 제발들이가자

3. **정답** 원문은 향찰에 따라 표기했다. 향찰은 어순을 우리말에 맞도록 배열하고, 형식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 모두 한자를 빌려 표기하는 한자 차용 표기법이다. 음독 표기를 한 한자는 ‘矣, 散, 花, 良’이다.

4. **정답** 한자어를 빌려 표기하되, 우리말 어순에 맞게 표기했다.

서지정보

저자 김혜린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5319-8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30720

가격 1500원

값 1500 원



ISBN 979-11-377-5319-8 (PDF)